

올해 독감 백신을 꼭 맞아야 하는 이유



▲ 사진=shutterstock

올 가을 독감 예방 접종은 그저 '맞으면 좋은' 게 아니라, '반드시' 그것도 서둘러 맞는 게 좋을 것 같다. 찬바람이 불면 코로나19가 사태가 악화되고 여기에 독감 유행까지 더지면 이른바 '트윈데믹(twindemic)' 사태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가장 큰 문제는 코로나19 환자와 독감 및 계절성 인플루엔자 환자를 사실상 쉽게 구별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코로나19와 독감은 발열, 기침 등 증상이 비슷하기 때문에 각각의 유증상자를 병원에서 가려받기 쉽지 않다. 아마도 코로나19 감염 위험자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다. 환자 입장에서 불안한 것은 물론, 코로나19 탓에 가뜰이나 과부하가 걸린 의료기관에서도 병상 부족 등 위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어느 해보다 독감에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다.

미국 '허프 포스트'에 따르면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생후 6개월이 넘는 사람은 9-10월 사이에 독감 백신을 맞는 게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뉴욕대학교 의대의 전염병 전문가 제니퍼 라이더 박사는 "가을바람이 불면 바로 맞는 게 좋다." 고 말했다.

독감 환자는 대개 가을에 늘기 시작해서 12월에서 2월 사이에 절정에 달한다. 독감 예방 접종을 받고도 항체가 형성되기까지는 2주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서두르는 쪽이 낫다는 것. 백신의 효과는 6개월 가량 지속된다.

백신은 노년층과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접종이 이뤄진다. 그러나 올해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평소 독감 예방 접종을 받지 않는 사람들도 백신을 접종하는 게 좋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65세 이상이라면 특히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면역력이 떨어지는 경우 항원 함량이 높은 고용량백신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의사와 상담하는 것도 중요하다.

컬럼비아 대학교 의대 소아과 전문의 데이비드 버크홀츠 박사에 따르면, 9세 이하 어린이는 독감 예방 주사를 두 번 맞아야 한다. 따라서 9월 중순이 지나기 전에 첫 번째 접종을 받는 게 좋다. 그래야 11월이 되기 전에 추가 접종까지 마칠 수 있기 때문이다.

보통 독감 백신의 경우 매년 2월 바이러스 전문가들이 다가올 겨울에 유행할 바이러스 유형을 예측하고 백신 개발 및 생산 업체에 전달한다. 업체들은 이에 맞춰 가을, 겨울에 대비할 독감 백신을 개발, 생산 및 보급한다. 해마다 확산되는 독감 바이러스 유형이 다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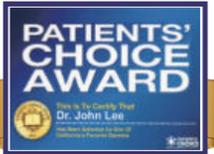
최악의 시나리오는 집단 면역력이 작동하기 어려운 새로운 유형의 독감 바이러스가 올 가을에 유행하는 경우다. 현재 올 가을, 겨울에 활용될 독감 백신이 생산 중인데 새로운 유형의 독감 바이러스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백신을 6개월 이내에 생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www.fullertonsmile.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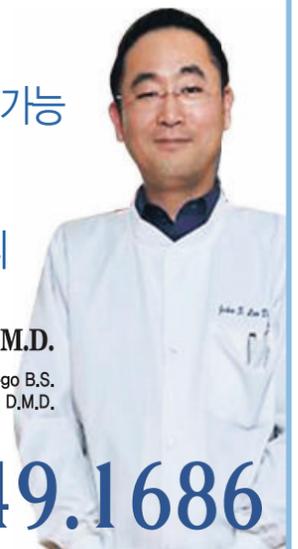
A' DENTISTRY

나에게

꼭 맞는 틀니가 있는 곳!



- 틀니전문
- 틀니수리 1-2시간안에 가능
- 자체 랩보유
- 임플란트 틀니



John S. Lee, D.M.D.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B.S.
Tuff Dental School, D.M.D.

714.449.1686

536 W Commonwealth Ave. #A, Fullerton, CA 92832



과연을 담은 풍기인견

인견사랑

2020년도 인견사랑을 사랑해주시고
찾아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올해 시즌은 9월 말에 끝나고
2021년 4월에 다시 오픈 합니다.
9월 한달 세일합니다

대박 세일 인견 마스크 판매



부에나파크 지점
(소스몰 2층 엘리베이터 앞)

Tel. (213) 800.1158
6990 Beach Blvd. #G202, Buena Park, CA 90621
오픈 시간 : 11:00am ~ 06:00pm

L.A. 지점
갤러리아 명크의 집 내